

주간 2017. 03. 06. ~ 2017. 03. 12.

전남농업정보

127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마늘·양파 저장동향, 가격 및 생산전망
- 대파 출하, 가격 및 생산전망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순천시, 올해 농산물 수출 70억 달성 위해 총력
-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조기출하용으로 좋은 새 품종 참벼 『운일찰』 과 『운백찰』
- 전남농기원, 콩 다수확 및 노동력절감 기술 개발

정책동향

- 2016년산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급
- 전남도, 가축분뇨 처리 사업비 105억 지원

사업신청 및 홍보

-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 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21일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6도, 최고기온: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2~5mm)과 비슷하겠음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마늘 저장동향, 가격 및 생산전망
- ▶ 양파 저장동향, 가격 및 생산전망
- ▶ 대파 출하, 가격 및 생산전망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1

- ▶ 순천시, 올해 농산물 수출 70억 달성 위해 총력
- ▶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 ▶ 미국 AI 발생 동향 및 대응방향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4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5.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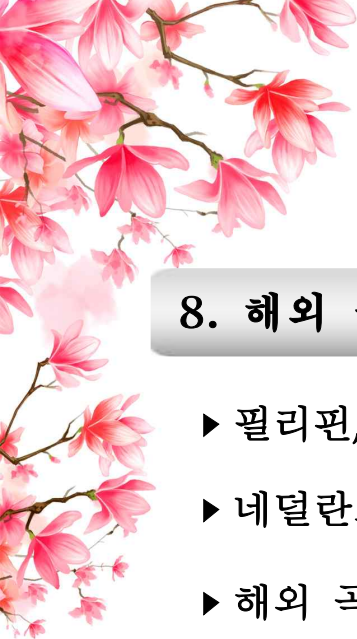
- ▶ 비파잎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 정보제공
- ▶ 분화수국의 수익성 및 전업농 경영모형
- ▶ 스톡재배 토양 염류농도 경감을 위한 녹비작물 효과
- ▶ 쑥갓 친환경인증 유형별 수익성 분석
- ▶ 조기출하용으로 좋은 새 품종 찰벼 『운일찰』 과 『운백찰』
- ▶ 전남농기원, 콩 다수확 및 노동력절감 기술 개발
- ▶ 춘삼월에 아열대 과일 비파 맛 볼 수 있다
- ▶ 모판 관리로 건강한 고구마 생산하세요
- ▶ 국내산 반려견 기능성 사료 개발 박차
- ▶ 올 봄 텃밭에서 약초 재배해보세요
- ▶ 과수 묘목 구입 시 뿌리, 줄기 꼼꼼히 보세요

6. 정책 동향 30

- ▶ 전남 특화 농산물 안전성 강화한다
- ▶ 2016년산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급
- ▶ 전남도, 가축분뇨 처리 사업비 105억 지원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3

- ▶ 순천시, 로컬푸드 사업원년 매출 16억 올려 흑자 달성
- ▶ 나주시, 배 화상병 방제 약제비 긴급 지원
- ▶ 광양시, 원예산업 5개년 종합계획 마련하고 집중 육성
- ▶ 고흥군, 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농가걱정 끝!
- ▶ 보성군, 과수 · 원예산업 집중 육성
- ▶ 해남군,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로 경쟁력 강화



8. 해외 농업정보 39

- ▶ 필리핀, 유제품 수입 급증
- ▶ 네덜란드, 대두 재배면적 확대 계획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3. 13.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도세 유입 및 풍부한 구곡 공급량으로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작년 8월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세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브라질 수확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2개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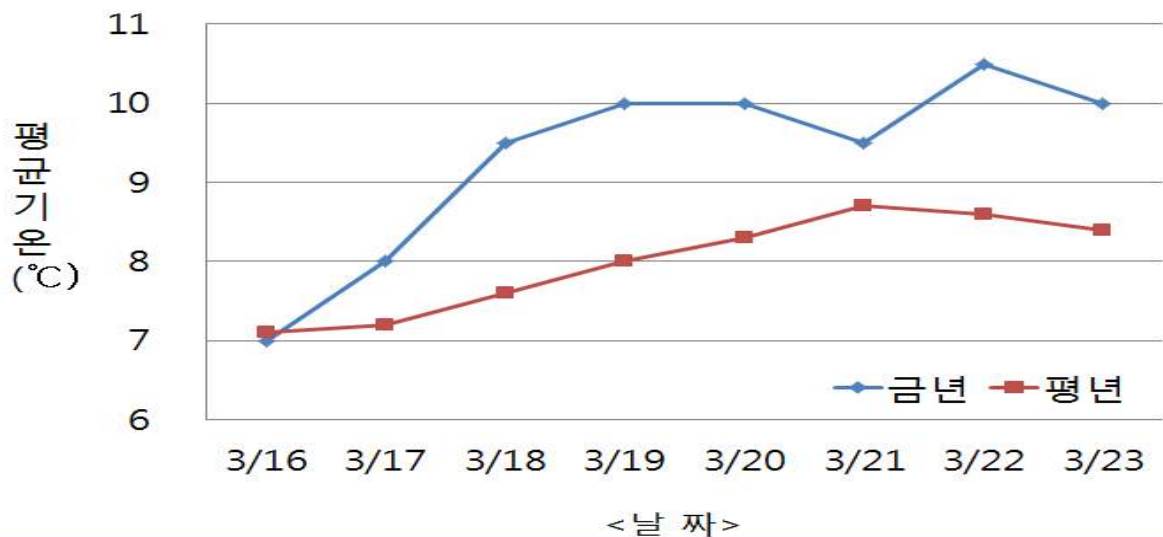
- ▶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 감동이 있는 『성공농업 이야기』 소개한다
- ▶ 국제농업박람회, 20일부터 입장권 예매
- ▶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春分), 24절기 가운데 네 번째 절기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3월 16일 ~ 3월 23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9.3℃ (평년대비 1.3℃ 높음)
- 최고기온 : 15.5℃ (평년대비 1.4℃ 높음)
- 최저기온 : 3.1℃ (평년대비 0.2℃ 높음)
- 강 수 량 : 2.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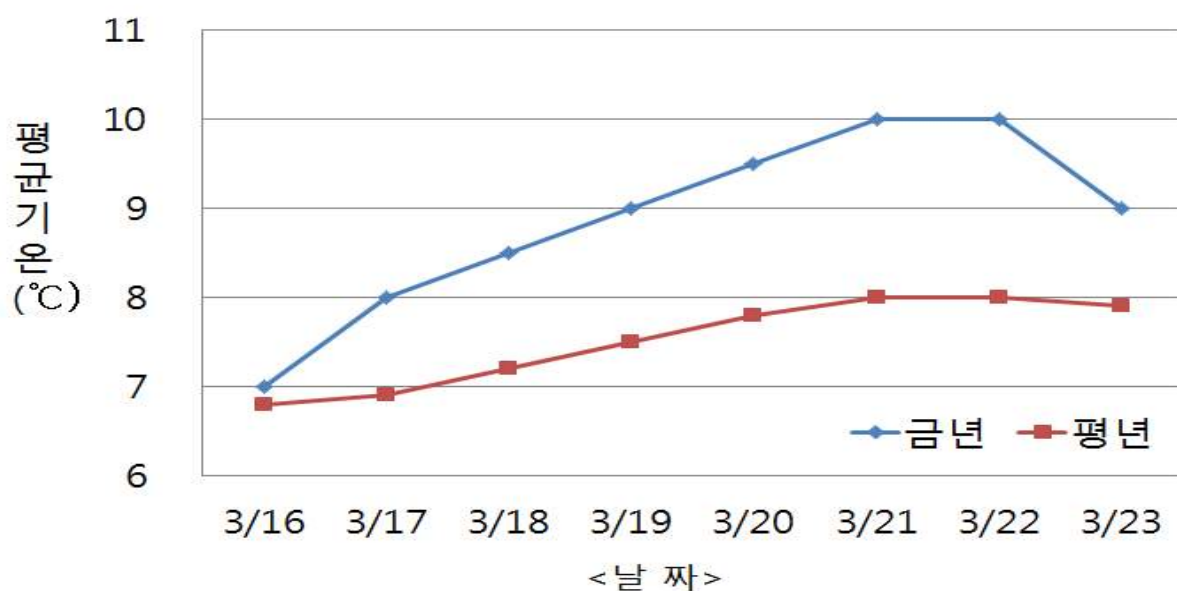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9.3	8.0	1.3	15.5	14.1	1.4	3.1	2.9	0.2	2.5
3. 16.(목)	7.0	7.1	-0.1	14.0	12.8	1.2	0.0	2.2	-2.2	2.8
3. 17.(금)	8.0	7.2	0.8	16.0	13.2	2.8	0.0	2.2	-2.2	2.7
3. 18.(토)	9.5	7.6	1.9	17.0	13.9	3.1	2.0	2.4	-0.4	2.1
3. 19.(일)	10.0	8.0	2.0	17.0	14.4	2.6	3.0	2.6	0.4	2.1
3. 20.(월)	10.0	8.3	1.7	17.0	14.8	2.2	3.0	3.0	0.0	2.2
3. 21.(화)	9.5	8.7	0.8	13.0	14.9	-1.9	6.0	3.5	2.5	2.4
3. 22.(수)	10.5	8.6	1.9	15.0	14.6	0.4	6.0	3.7	2.3	2.7
3. 23.(목)	10.0	8.4	1.6	15.0	14.2	0.8	5.0	3.7	1.3	2.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3월 16일~3월 23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8.9℃ (평년대비 2℃ 높음)
- 최고기온 : 13.4℃ (평년대비 0.4℃ 높음)
- 최저기온 : 4.4℃ (평년대비 0.9℃ 높음)
- 강 수 량 : 2.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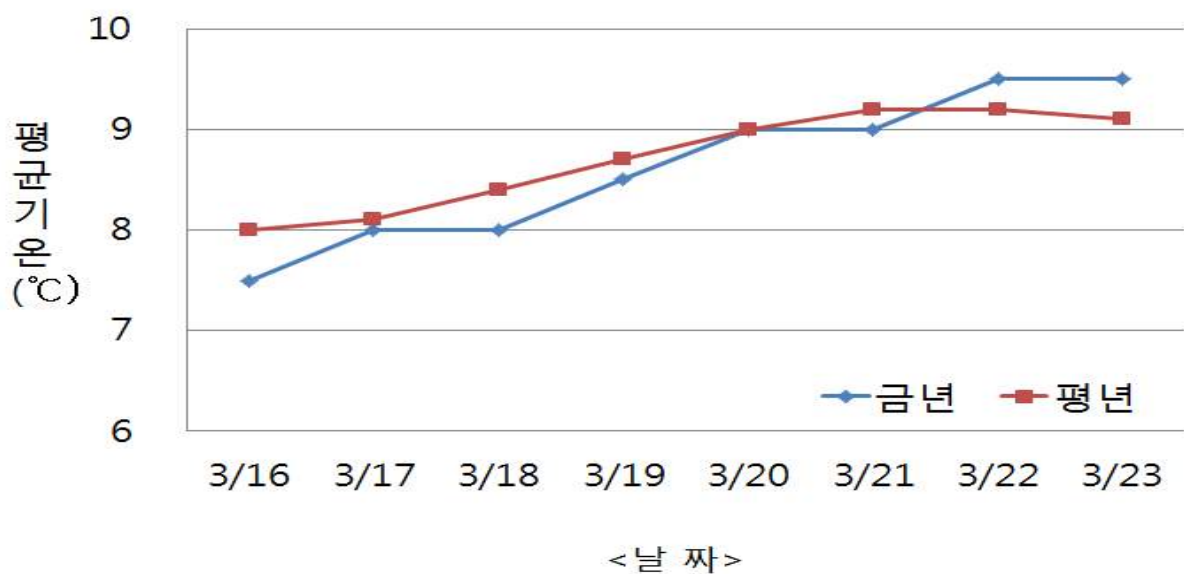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8.9	7.5	2.0	13.4	12.9	0.4	4.4	3.5	0.9	2.7
3. 16.(목)	7.0	6.8	5.0	12.0	12.0	0.0	2.0	2.9	-0.9	3.0
3. 17.(금)	8.0	6.9	1.1	14.0	12.2	1.8	2.0	2.8	-0.8	3.0
3. 18.(토)	8.5	7.2	1.3	14.0	12.7	1.3	3.0	3.0	0.0	2.5
3. 19.(일)	9.0	7.5	1.5	14.0	13.2	0.8	4.0	3.2	0.8	2.4
3. 20.(월)	9.5	7.8	1.7	14.0	13.5	0.5	5.0	3.6	1.4	2.6
3. 21.(화)	10.0	8.0	2.0	13.0	13.6	-0.6	7.0	3.9	3.1	2.7
3. 22.(수)	10.0	8.0	2.0	13.0	13.3	-0.3	7.0	4.1	2.9	2.7
3. 23.(목)	9.0	7.9	1.1	13.0	13.0	0.0	5.0	4.1	0.9	2.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3월 16일~3월 23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8.6℃ (평년대비 0.1℃ 낮음)
- 최고기온 : 13.8℃ (평년대비 1℃ 높음)
- 최저기온 : 3.5℃ (평년대비 2.4℃ 낮음)
- 강 수 량 : 3.1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8.6	8.7	-0.1	13.8	12.8	1.0	3.5	5.9	-2.4	3.1
3. 16.(목)	7.5	8.0	-0.5	13.0	12.1	0.9	2.0	4.0	-2.0	4.2
3. 17.(금)	8.0	8.1	-0.1	14.0	12.3	1.7	2.0	4.0	-2.0	3.9
3. 18.(토)	8.0	8.4	-0.4	14.0	12.6	1.4	2.0	6.0	-4.0	3.0
3. 19.(일)	8.5	8.7	-0.2	14.0	12.9	1.1	3.0	6.0	-3.0	2.8
3. 20.(월)	9.0	9.0	0.0	14.0	13.1	0.9	4.0	7.0	-3.0	2.6
3. 21.(화)	9.0	9.2	-0.2	13.0	13.2	-0.2	5.0	7.0	-2.0	2.7
3. 22.(수)	9.5	9.2	0.3	14.0	13.1	0.9	5.0	7.0	-2.0	2.8
3. 23.(목)	9.5	9.1	0.4	14.0	13.1	0.9	5.0	6.0	-1.0	3.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마늘 저장동향, 가격 및 생산전망

□ 저장동향

- 2016년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평년보다 12% 적으나, 전년보다 16% 많은 3만 4천톤 내외로 추정된다.

□ 가격전망

- 3월 깬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16년산 재고량 증가와 정부 수입 비축물량 방출로 전년보다 낮고, 전월대비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 생산전망

- 전년 동기 대비 마늘 생육은 좋음 8%, 비슷 63%, 나쁨 29%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7년 마늘 추정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7% 증가한 22,220ha로 나타났다. 평년 수준의 작황을 감안할 경우 2017년산 마늘 생산량은 전년보다 5% 많은 29만톤 내외로 추정된다.
- 2017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단위 : ha, kg/10a, 천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7년	22,220	1,305	289.7
2016년	20,759	1,327	275.5
평 년	24,831	1,305	324.0
전년대비	6.9	-1.7	5.1
평년대비	-10.6	-	-10.6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파 저장동향, 가격 및 생산전망

□ 저장동향

- 저장양파 재고량은 평년대비 33% 적으나, 전년대비 21% 많은 7만 8천톤으로 추정된다.

□ 가격전망

- 3월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전년보다 많으나, 조생종 양파의 출하 시기가 전년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월대비 강보합세가 예상된다. 4월에는 조생종 양파의 본격 출하로 3월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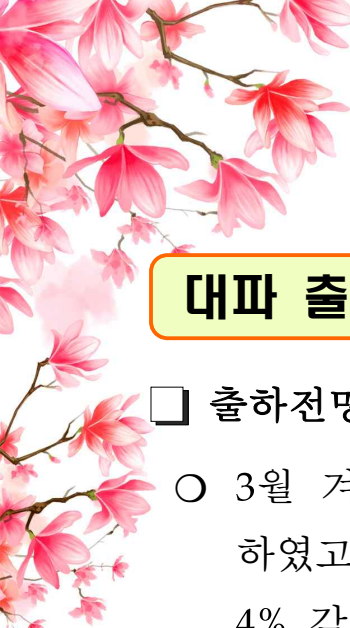
□ 생산전망

- 2017년산 조생종 양파의 생육상황 결과, 2016년산 대비 나뭇이 38%, 좋음이 14%로 나타나 생육은 전년보다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7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대비 22% 적으나, 평년대비는 12% 많은 14만 7천톤으로 전망된다.
- 2017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7년	2,377	6,193	147
2016년	2,990	6,297	188
평 년	2,096	6,279	132
전년대비	-20.5	-1.6	-21.8
평년대비	13.4	-1.4	11.9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파 출하, 가격 및 생산전망

□ 출하전망

- 3월 겨울대파 출하면적은 주 출하지인 전남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작황 부진으로 출하 대기면적이 빠르게 소진되어 전년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3월 겨울대파 단수는 여름철 가뭄과 폭염 피해로 초기 생육이 부진하였으며, 2월 서리 피해로 전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4월 대파 출하면적은 신안·진도·영광의 겨울대파 출하 대기 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6% 감소할 전망이다.

□ 가격전망

- 3월 대파 도매가격은 kg당 전년 2,170원, 전월 2,190원 보다 높은 2,7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3월 가격은 주산지인 전남의 겨울대파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출하량이 적어 전년과 전월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전망

- 금년 봄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포전거래가격이 높았고, 최근 대파 가격 강세로 전년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3~5월 대파 정식의향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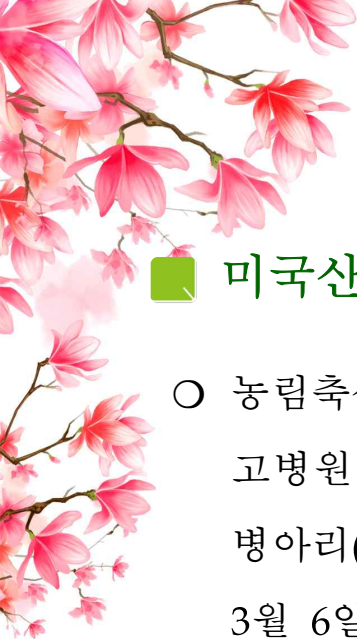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순천시, 올해 농산물 수출 70억 달성 위해 총력

- 우수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및 품목 다변화로 글로벌 식탁 선점 -

- 순천시는 농산물 수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농산물 수출 70억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올해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할 주요 시책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와 과실류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 촉진비 지원, 해외시장 판촉행사 추진, 지속적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이어 우수 농산물 생산 가공업체와의 연계 등 다양한 수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최근 국내·외 여러 악재가 농산물산업의 경쟁기반을 흔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순천시는 2014년(33억원), 2015년(49억원), 2016년(55억원) 3년간 꾸준히 농산물 수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에 대한 난제를 수출 농가, 수출업체와 시가 함께 고민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시는 이에 발맞춰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향후 수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8년에는 농산물 수출 100억 돌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순천시의 주요 수출 품목은 가공식품인 장류, 김치류, 반찬류, 한과류와 신선농산물로는 과실류인 단감·배·참다래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미국·동남아 지역이다. 농산물 수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749-8681)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순천시



■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 애완조류 및 계란(종란, 식용란)의 수입을 3월 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 미국 동부 테네시주 소재 종계장에서 발생(73,500마리 사육)

-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이며,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가능함

* 금번 수입금지 이후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가능 국가는 뉴질랜드·호주·캐나다로 한정되며, 닭고기는 브라질·칠레·필리핀·호주·캐나다·태국에서만 수입 가능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미국 AI 발생 동향 및 대응방향

- 미국 AI 발생에 따른 미국산 신선란·닭고기 수입 중단(3.6일)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 미국산 수입량은 신선란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1% 미만('17.1~2월), 닭고기는 국내 생산량의 1.6%('16년 기준) 수준임
- 정부는 미국산 수입 중단이 심리적 영향에 따른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신선란의 경우 현재 수입가능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으로부터 수입을 추진하고 수입금지 해제 예정국(덴마크 3.24일 등)의 수입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최종 AI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미 발생 시 AI 청정국 지위 회복하며, 수입금지 해제 검토
-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신선란 수급과 가격을 지속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항공 운송비 재지원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이와 병행하여 농장·유통업체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재고량 과다보유 및 사재기를 방지해 나갈 계획임
- 닭고기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전·평년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나 산지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 만큼 닭고기 소매가(3.1~9일) 5,465원/kg (전년비 Δ 0.5%, 평년대비 Δ 6.4%)
- 생산자단체·계열화사업자의 자율적 가격인상 자제 협조(3.8일) 및 필요시 비축물량(12천톤) 방출을 통해 가격·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임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3. 13.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13)	1주일전 (03/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800	36,200	42,147	↓ 12.2	↓ 24.5
	콩(백태)	35kg	172,000	172,000	172,000	150,000	158,333	↑ 14.7	↑ 8.6
	고구마(밤)	10kg	26,000	26,000	25,920	27,000	27,027	↓ 3.7	↓ 3.8
	감자(수미)	20kg	36,200	35,800	34,960	33,100	30,327	↑ 9.4	↑ 19.4
채소류	배추(월동)	1kg	930	960	996	1,170	840	↓ 20.5	↑ 10.7
	양배추	10kg	11,200	12,200	12,880	6,975	7,052	↑ 60.6	↑ 58.8
	오이(다다기계통)	10kg	24,667	26,667	30,800	36,250	36,158	↓ 32.0	↓ 31.8
	애호박	8kg	18,200	22,000	20,760	28,550	27,210	↓ 36.3	↓ 33.1
	건고추(화건)	60kg	570,000	570,000	560,000	780,000	836,667	↓ 26.9	↓ 31.9
	풋고추	10kg	48,400	73,000	55,000	46,050	77,587	↑ 5.1	↓ 37.6
	마늘(깐마늘)	20kg	143,000	143,000	147,000	162,200	116,293	↓ 11.8	↑ 23.0
	양파	20kg	28,000	28,400	26,960	32,700	20,231	↓ 14.4	↑ 38.4
	당근	20kg	43,600	44,200	56,720	24,950	23,170	↑ 74.7	↑ 88.2
	대파	1kg	2,980	3,180	2,432	3,003	1,803	↓ 0.8	↑ 65.3
	파프리카	5kg	27,400	34,000	33,640	28,250	30,643	↓ 3.0	↑ 10.6
	딸기	1kg	7,900	8,400	11,000	10,100	9,270	↓ 21.8	↓ 14.8
	토마토	10kg	33,800	34,200	37,920	41,550	36,307	↓ 18.7	↓ 6.9
	방울토마토	5kg	21,600	22,800	20,960	35,550	27,600	↓ 39.2	↓ 21.7
	수박	1개	19,400	19,400	18,700	18,850	16,897	↑ 2.9	↑ 14.8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8,400	39,000	40,560	36,900	48,022	↑ 4.1	↓ 20.0
	배(신고)	15kg	41,400	41,000	40,160	44,250	44,350	↓ 6.4	↓ 6.7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13)	1주일전 (03/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9,000	519,000	519,000	529,000	549,667	↓ 1.9	↓ 5.6
	느타리버섯	2kg	10,800	11,800	11,240	11,200	11,290	↑ 3.6	↓ 4.3
	새송이버섯	2kg	8,000	8,200	8,280	9,000	8,707	↓ 11.1	↓ 8.1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752	7,775	7,851	8,237	6,247	↓ 5.9	↑ 24.1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90	1,724	1,785	1,887	1,781	↑ 5.5	↑ 11.7
	닭고기	1kg	5,771	5,406	5,457	5,555	6,002	↑ 3.9	↓ 3.8
	계란(특란)	30개	7,258	7,300	7,923	5,155	5,394	↑ 40.8	↑ 34.6
	우유	1리터	2,529	2,529	2,529	2,549	2,476	↓ 0.8	↑ 2.1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3. 13.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501 천원	5,435 천원	5,839 천원	↑ 1.2	↓ 5.8
	거세	5,834 "	6,382 "	6,949 "	↓ 8.6	↓ 16.0
송아지 (6~7월)	암	2,773 "	2,535 "	2,847 "	↑ 9.4	↓ 2.6
	수	3,342 "	3,103 "	3,415 "	↑ 7.7	↓ 2.1
육우(600Kg)		2,700 "	2,933 "	3,693 "	↓ 7.9	↓ 26.9
젖소수송아지(7일령)		153 "	113 "	236 "	↑ 35.4	↓ 35.2
돼지(110kg)		366 "	373 "	349 "	↓ 1.9	↑ 4.9
육계(원/kg)		2,313 원	2,247 원	1,373 원	↑ 2.9	↑ 68.5
계란(원/특란10개)		1,702 "	1,692 "	917 "	↑ 0.6	↑ 85.6
오리(원/kg)		2,500 "	2,500 "	1,667 "	-	↑ 50.0

※ 한우(거세우) : 6,668천원/마리(△834)

- '15년 생산비(5,658)-'15년 송아지 가격(2,332)+현재 수 송아지 가격(3,342)
- 육우 3,798천원, 돼지 297천원,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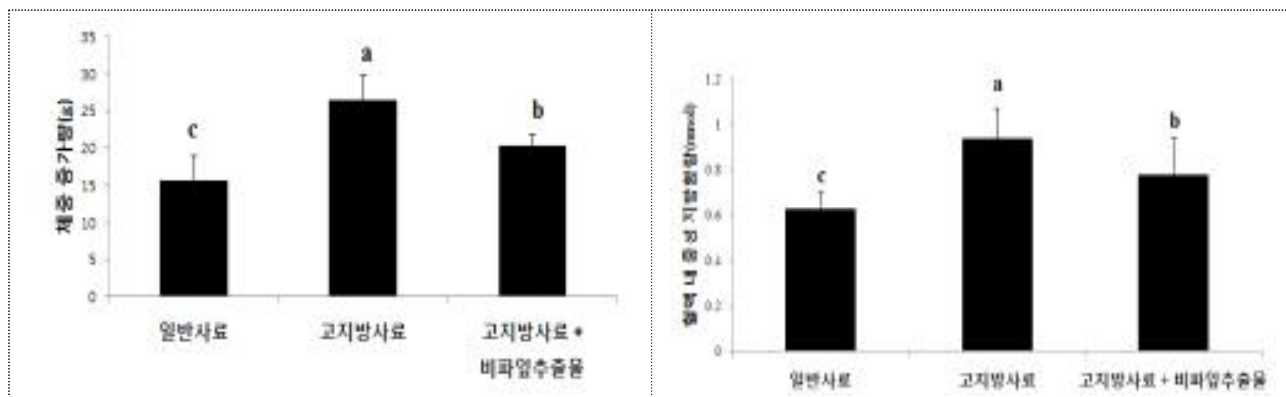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비파잎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 정보제공

□ 개발기술 내용

- 고지방 식이와 비파잎 추출물이 혼합된 사료를 먹은 쥐는 고지방 사료를 먹은 쥐보다 23%의 체중감소 효과가 있음
- 혈액 내 중성지방 함량은 고지방 사료를 먹은 쥐보다 비파잎 추출물이 혼합된 사료를 먹은 쥐가 17% 낮았음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비파잎의 항비만 효과 홍보에 따른 생산농가 재배 확대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비만 및 관련 질환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소재발굴로 비파잎의 가치 향상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소미, 박문영

■ 분화수국의 수익성 및 전업농 경영모형

□ 개발기술 내용

- 분화 수국 1기작의 10a당 수량은 10,153분이며, 조수입은 53,062천원, 경영비 39,756천원으로 소득은 13,306천원임
- 비목별 투입비용 분석결과, 10a당 생산비는 54,276천원이며, 분당 생산비는 5,354원임
- 연간 소득 54,175천원을 달성하기 위한 전업농 경영규모는 4,040m²이며, 연간 유동자본은 119,172천원이 소요됨

【수국 전업농 경영모형 설정】

경영현황	규모 : 4,040㎡(0.40ha)				시설종류 : 하우스				재배방법 : 양액				
연간 노동투하량					○ 연간 유동자본 : 119,172천원								
자 가	고 용		계										
1,711	3.406		5,117										
경영성과 (천원)	조수입 : 216,495				생산량 : 41,424분				경영비 : 162,206				
	생산비 : 221,449				소 득 : 54,289				순수익 : -4,954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별 소요노동력	190	511	609	870	756	699	63	31	250	347	481	310	5,117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지방자치단체 화훼산업 육성 재정지원 근거자료 활용
- 틈새 대체 화훼작목 육성 교육정보 제공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영농손실보상, 화훼농가 경영개선 상담 기준 자료로 활용
- 경영불안 화훼 작목 재배농가의 작목전환 의사결정 정보제공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손장환

■ 스톡재배 토양 염류농도 경감을 위한 녹비작물 효과

□ 개발기술 내용

- 녹비작물(옥수수) 재배 토양 혼화처리로 토양염류농도(EC)경감 : 4.4 → 2.3
- 스톡 하우스의 균핵병 이병율 저하 : 12.3%(무처리) → 7.6%
 - 꽃수량은 6,129(속/10a)으로 무처리(5,987)대비 10.2% 증가
- 스톡 재배토양 염류농도 경감 녹비작물 효과

수지수	100	110
	67%	74
처리내용	무처리	녹비작물(옥수수)
토양염류농도(EC)	4.4	2.3
균핵병 피해율(%)	12.3	7.6
절화중(g/분)	75.8	77.4

—●— 상품율 * 녹비작물(옥수수)생체 투입량 : 1,500kg/10a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스톡 재배 및 시설 토양 염류농도 경감 대책기술 보급
- 틈새 화훼 및 시설재배 연작장해 피해농가 교육자료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스톡 재배 균핵병 이병율 저하 : 12.3%(무처리) → 7.6%
- 꽃수량은 6,129(속/10a)으로 무처리(5,987)대비 10.2% 증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 쑥갓 친환경인증 유형별 수익성 분석

□ 개발기술 내용

- 10a당 소득은 유기재배 4,495,466원, 무농약재배 3,592,085원으로 일반재배 2,114,787원에 비해 각각 112.6%, 69.9% 증가함
- 10a당 노동시간은 유기재배 196.2시간, 무농약재배 187.1시간으로 일반재배 174.9시간에 비해 각각 12.2%, 6.9% 증가함

【쑥갓 친환경인증 유형별 수익성】

(기준 : 년 1기작, 원/10a)

구 분	일반재배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생산량(kg)	2,229(100.0)	1,983(89.0)	2,073(93.0)
판매가격(원/kg)	1,742(100.0)	3,396(179.1)	2,833(162.6)
조수입	3,882,918(100.0)	6,734,268(173.4)	5,872,809(151.2)
경영비	1,768,131(100.0)	2,280,734(126.6)	2,280,724(129.0)
소 득	2,114,787(100.0)	4,495,466(212.6)	3,592,085(169.9)
총 노동시간(시간)	174.9(100.0)	196.2(112.2)	187.1(106.9)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쑥갓 친환경재배(유기재배, 무농약재배) 희망농가의 유형별 재배 방법 선택 시 의사결정 자료 제공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결정 자료 제공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박 신



■ 조기출하용으로 좋은 새 품종 찰벼 『운일찰』 과 『운백찰』

- 벼 재배안정성과 수량성 높은 조생찰벼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병해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은 조기출하용 찰벼 『운일찰』 과 『운백찰』 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운일찰】



【운백찰】

- 찰벼는 주로 찰밥과 떡용으로 이용해 왔으며, 술·고추장·유과·강정 등을 만드는 원료곡으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품종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운일찰』 과 『운백찰』 의 출수기는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오대벼와 비슷한 7월 27일경인 조생종 찰벼이다.
- 중·북부평야, 중산간지 및 남부고랭지에서 5월 20일 모내기했을 때 이삭 패는 시기가 7월 27일경으로 오대벼와 비슷하며 9월 10일 경이면 수확이 가능해 조기출하용으로 유망한 품종이다.
- 쌀 수량성은 운일찰 533kg/10a, 운백찰 544kg/10a로 메벼인 오대보다 높고 쓰러짐에 강하며 재배 안정성이 높은 품종이다.
- 『운일찰』 과 『운백찰』 은 새 품종이용촉진사업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종자생산 단계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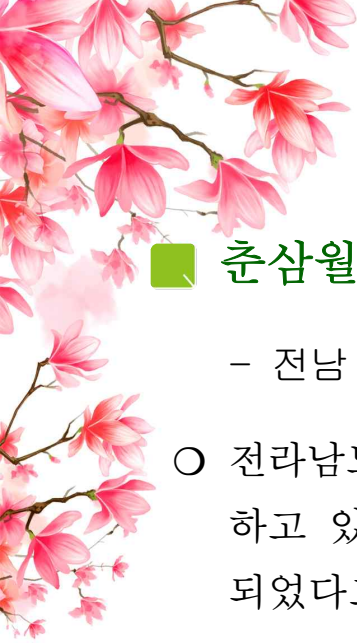


■ 전남농기원, 콩 다수확 및 노동력절감 기술 개발

- 전남지역 밭작물 2모작 지대 맞춤형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2014년부터 3년간 연구 끝에 전남 남서부 2모작 지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콩 생산으로 노동력 절감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면 ha당 수량은 2.9톤으로 일반 관행 재배 대비 57% 증대되고 투입 노동력은 122시간으로 38% 절감된다고 한다.
- 생산 기술은 첫째 파종 전에 꼭 밭거름을 뿌려 깊이갈이하고, 둘째 3년에 1회 이상 콩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며, 셋째 콤바인 수확이 수월하고 수량이 많은 해품콩을 10a당 11,000주 정도 심는데 이때 각 주당 종자는 2~4개씩 파종 해주면 된다.
- 또한, 노동력 절감기술은 첫째 파종과 제초제살포는 일관 작업기를 이용해서 동시에 실시하고, 둘째 멀티콥터(드론)로 병해충을 방제하며, 셋째 범용콤바인으로 수확한 즉시 차광된 하우스에 30~40cm 두께로 10여 일간 야적해서 건조하는 기술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동관 연구관은 콩 농사의 문제점은 양파·마늘 등 겨울작물 수확과 동시에 콩 등 여름작물을 재배해 깊이갈이나 충분한 유기물투입이 어렵다는 점과 여름작물 중에서 콩처럼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없어 계속된 이어짓기로 비싼 농자재와 신기술을 투입해도 수량 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춘삼월에 아열대 과일 비파 맛 볼 수 있다

- 전남 완도에서 첫 수확하여 수도권 백화점에 출하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 특화과수로 집중 육성 지원하고 있는 비파 과일이, 3월 8일부터 수도권 유명 백화점에 공급되었다고 밝혔다.
- 완도군 군외면의 하우스 시설재배에서 생산된 비파(양동근 농가)가 올해도 가장 빨리 수확한 것이다.
- 하우스 비파는 3월 상순부터 5월 하순까지 생산되어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는데 노지보다 과일이 크고 당도도 높아 품질이 균일하고 맛도 뛰어나서 인기가 좋다.
-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금년 하우스 비파는 약 5ha에서 60여 톤이 생산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한편, 완도군에서는 비파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120여 농가에서 약 71ha를 재배하고 있다.
- 비파 과일은 과즙이 많고 맛이 달며 새콤달콤하여 어린이나 노약자, 여성들이 선호한다. 특히 과일에는 베타카로틴·펙틴·칼륨 등 무기물 등 영양도 풍부하여 항산화, 항암, 피부노화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박문영 연구관은 재배농가의 애로사항인 시설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과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하여 완도 등 남해안 지역 새소득 산업으로 조기 확대 발전하도록 지속적인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모판 관리로 건강한 고구마 생산하세요

- 고구마 모판 흰비단병과 무름병 예방 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고구마 모판의 삽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구마 모판에서 많이 발생하는 흰비단병과 무름병 예방법을 소개했다.
- 지난 2년 간 흰비단병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고구마 농가의 약 10%에서 고구마 모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병 예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무름병은 한번 발생한 농가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흰비단병】



【무름병】

- 흰비단병과 무름병이 발생하면 씨고구마는 물론 새로 발아돼 나온 고구마 묘까지 무르고, 말라 죽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무름병은 번식력이 강해 방제하기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
- 고구마 흰비단병과 무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판 관리가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흰비단병과 무름병은 30℃ 이상의 과습한 조건에서 잘 발생하고 물의 흐름이나 공기 중 포자로 쉽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과습 해서는 안 된다.



- 육묘상에 씨고구마를 삼식한 다음 물을 줄 때, 토양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하며, 못자리가 과습이 되지 않도록 환기해야 한다.
- 또한 품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못자리 토양 온도가 35℃를 넘지 않게 해야 하며, 40℃ 이상 올라가면 고구마가 토양 온도로 인해 익는 현상이 나타나 무름 현상이나 다른 부생 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 못자리에 흰비단병 및 무름병이 발생했다면 그 개체는 주변 토양과 함께 없애야 한다.
- 흰비단병은 수확과 저장 중 둥근 무늬병의 원인균이 될 수 있으므로 못자리 관리와 수확한 다음 관리도 중요하다.
- 못자리에 고구마 묘를 채취할 때 토양 표면에 접한 부위에서 10cm 이상 윗부분을 취해 곰팡이 감염을 최소화한 다음 포장에 삼식 한다.
- 고구마를 수확한 다음에는 고구마 표면의 흙을 최대한 없앤 뒤, 큐어링 처리 및 온·습도 조절을 잘 해줘야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국내산 반려견 기능성 사료 개발 박차

- 반려견용 프리미엄사료 국내 생산기술 개발 추진키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축산연구소는 국내 동물반려 1,000만 가구 시대를 맞아 국내산 반려견 기능성 사료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반려동물 가구 및 산업시장은 매년 두자리수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는 2012년 17.9%에서 2015년 21.8%로 급증했으며 국내인구 5명중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 반려동물 시장규모도 2012년 9,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1조 8,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2020년에는 5조 8,1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 특히, 반려동물 사료의 70%이상은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어 반려견용 국내산 기능성 프리미엄 사료 개발이 시급하다.
- 이에 축산연구소는 곤충, 약용 과수, 녹차 등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을 이용하여 비만방지를 위한 다이어트, 노령견을 위한 골격 강화, 피부·모질 개선, 알레르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 사료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이러한 기능성 사료가 개발되면 수입산 반려견 사료의 대체효과를 가져와서 국내 사료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 전남 축산연구소 박상국 소장은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맞추어 다양한 국내산 반려견 기능성 사료의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올 봄 텃밭에서 약초 재배해보세요

- 쌈·나물로 먹을 수 있는 텃밭 약초 5종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최근 도시민에게 인기가 높은 주말 농장과 텃밭에서 재배가 쉬운 약초 5종을 제시했다.
- 선발된 5종의 약초는 전국 모든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고 종자를 구하기 쉬우며 쌈이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
- 텃밭에서 재배하기 좋은 약초로는 잔대·일당귀·씀바귀·더덕·도라지 등 5종이다.



【잔대】



【일당귀】



【썸바귀】

- 잔대 : 칼슘과 비타민A와 C가 풍부하며 이른 봄삭과 뿌리를 나물로 이용한다. 특히 새싹은 맛이 달고 씹히는 맛이 부드러워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
- 일당귀 : 어린잎은 향이 좋고 기능성이 풍부해 생선이나 불고기등과 잘 어울려 쌈 채소로 제격이다.
- 썸바귀 : 쓴맛이 나는 썸바귀는 소화를 돕고 식욕을 돋우어 주며 칼슘, 철, 비타민A 함유량이 시금치보다 월등히 높다. 봄철에는 데쳐서 무침이나 쌈채로 즐기기도 한다. 섬유소가 풍부하고 열량이 적어 비만인 사람에게 좋다.





【더덕】



【도라지】

- 더덕과 도라지 : 사포닌 성분이 많아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 흡입으로 손상되기 쉬운 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주로 뿌리를 이용하며 잎 또한 식용이 가능하다.
- 이 토종약초 5종은 텃밭의 용도와 크기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 자녀교육·체험·조경용 텃밭에는 약초의 향과 맛, 그리고 독특한 꽃이 피는 도라지와 더덕 등이 좋으며, 가족 건강과 실용을 위한 텃밭에는 잔대와 2~3년생의 도라지·일당귀·썸바귀 등이 적합하다.
- 5m² 미만의 작은 밭에는 재배할 때 똑바로 자라며 좁게 심을 수 있는 도라지·잔대 등의 약초가 좋다.
-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정진태 농업연구사는 “도시민들이 직접 약초를 재배하면 맛과 건강뿐만 아니라 지친 심신에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에 추천한 5가지 약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약초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과수 묘목 구입 시 뿌리, 줄기 꼼꼼히 보세요

- 뿌리, 줄기에 상처와 병 있는지 관찰 당부 -

- 한번 심으면 장기간 재배하는 과수 나무는 좋은 묘목을 구입해 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에서는 과수 묘목 구입 시 줄기, 뿌리 등 겉모양을 보고 판별할 수 있는 건강한 과수 묘목 고르는 방법을 제시했다.

※ 과수 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 사진



▲ 사과 뿌리혹병 ▲ 배나무 줄기마름병 ▲ 사과 겹무늬썩음병 ▲ 응애알 ▲ 갈색날개매미충 산란흔적

- 먼저 뿌리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 뿌리가 잘 발달했는지, 뿌리에 상처가 없는지를 잘 살펴본다. 그리고 뿌리에 발생하는 뿌리혹병 감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뿌리혹병은 사과·배·복숭아·포도·블루베리 등 모든 과수에서 발생하는 병해로 뿌리나 잔뿌리에 혹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뿌리혹병에 감염된 과수 묘목은 건전 묘목에 비해 생육이 좋지 않으며, 결국 죽게 된다.
- 그 다음으로 줄기를 꼼꼼히 관찰한다. 줄기가 곧게 잘 뻗었는지, 줄기 껍질은 매끈하고 상처가 없는지 살펴본다.



- 그리고 줄기에 발생하거나 잠복할 수 있는 줄기마름병, 겹무늬썩음병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줄기마름병은 주로 잔가지에 발생하며, 검은색의 작은 반점이 가지 혹은 줄기 표면에 만들어진다. 병이 계속 될수록 가지가 검정색으로 변색되면서 죽는다.
- 겹무늬썩음병은 가지나 줄기에 울룩불룩한 사마귀 증상을 보인다. 병든 가지는 정상 가지에 비해 옅은 갈색을 띠며 죽어간다. 병든 가지의 껍질을 벗겨내면 내부는 이미 색이 변해 감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줄기에는 병해뿐만 아니라 해충이 월동할 수 있으므로 줄기에 흠이 파인 부위나 상처 부위를 유심히 살펴본다.
- 응애류의 경우 줄기의 상처 난 부위에서 월동할 수 있으므로 산란한 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은 가지에 알을 낳기 때문에 잘 관찰한다. 갈색날개매미충이 알을 낳은 가지는 표면이 찢어져 있고 줄기 표면이 거칠다. 그리고 내부에는 백색의 알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 동향

◆ 전남 특화 농산물 안전성 강화한다

-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잔류농약 등 검사 -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양수인)은 전남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 특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 이번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협업해 지역 특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중금속(납·카드뮴) 등에 대해 이뤄진다.
- 대상 농산물은 담양 딸기, 구례 오이, 영암 무화과, 영광 전고추 등 총 70여 건이다. 검사를 통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최경철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은 “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지역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곡성 메론, 나주 배, 화순 복숭아 등 지역 특화농산물 57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출처 : 전라남도

◆ 2016년산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1조 4,900억원을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에게 3월 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급대상 농가수는 684천명이며 법정요건을 갖춘 대상농지 706천 ha에 대해 농협의 각 시·군 지정사무소를 통해 농업인 계좌로 입금된다.
- 시·도별 지급면적 비율은 전남(21%), 충남(18%), 전북(17%), 경북(13%), 경기(8.9%), 경남(8.6%)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11ha로 나타났다.
- 수령자 수는 경북(117천명), 전남(114천명), 충남(111천명), 경남(88천명), 전북(78천명), 경기(70천명) 순이었으며, 서울과 제주에서도 각각 143명, 7명이 직불금을 수령한다.
- 지급단가는 목표가격(188,000원/80kg), 총 지급대상 면적(706천ha) 그리고 지원 가능한 예산범위(1조 4900억원)를 적용하여 80kg 한가마당 33,499원(농식품부고시 2017-06호, 2. 22일)으로 결정하였다.
-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은 2017년도 쌀 직불금 신청기간 중이니,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17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직불금 수령자 준수 의무 이행 강화, 부당수령 방지 및 신청 누락 예방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가축분뇨 처리 사업비 105억 지원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위해 친환경인증 농경지에 퇴액비 살포 등 추진 -

- 전라남도는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과 가축분뇨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올해 가축분뇨 처리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 사업비 10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가축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따른 악취를 줄이기 위해 화학비료를 친환경 가축분뇨 퇴·액비로 대체해 친환경 농지에 살포하는 것이다. 매년 국비 등 예산을 확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올해는 가축분뇨 퇴·액비화 및 정화개보수 등 개별 처리시설 29억원, 액비저장조 설치 28억원, 액비살포비 33억원, 액비유통센터 10억원, 악취 저감시설 5억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지켜야 한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지원을 바라는 양돈농가는 시·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한우·젖소·닭 농가는 2018년부터 참여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야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올해까지, 액비유통센터는 내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 액비저장조의 경우 슬러지가 퇴적돼 발효액비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라남도의 적극 건의로 올해부터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지원 내용에 저장조 내 슬러지 제거 비용을 포함해 지원하게 됐다.

* 출처 : 전라남도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순천시, 로컬푸드 사업원년 매출 16억 올려 흑자 달성

- 순천로컬푸드(주)가 지난 7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시민 주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 영업보고와 감사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의 건이 상정돼 승인 절차를 거쳤다.
-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는 시와 시민주주 1,089명이 자본금 9억원을 출자해 만든 민관공동 협력법인으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등 로컬푸드 연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직매장 개장 8개월 만에 매출 16억원 달성, 방문객 74,000명 돌파, 100만원 이상 소득 102농가를 탄생시켰으며 사업원년에 흑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 특히, 총 매출의 88%에 달하는 14억원을 농가에 환원해 실질적인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 시는 지속적인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오는 4월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에 농가레스토랑을 개장하고, 조례호수공원에 직매장 2호점도 10월 개장할 예정이다.
- 또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서면 구만리에 건립 중인 가공센터도 오는 4월 개장할 계획이다.

* 출처 : 순천시



■ 나주시, 배 화상병 방제 약제비 긴급 지원

- 배 재배 2,312농가, 총면적 2,139ha에 1억 5천만원 지원 -

- 나주시는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인 배 화상병이 2015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후 매년 발생됨에 따라, 화상병 방제 약제비를 지원하여 화상병 유입차단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배 화상병에 걸린 과수는 잎 가장자리가 흑갈색으로 변하며, 줄기 선단부가 마르기 시작해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게 되어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게 된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주시는 나주배원협과 협력하여 배를 재배하고 있는 2,312농가(총면적 2,139ha)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화상병 예방 약제를 15일까지 농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 배 화상병은 일단 발생하게 되면 병에 걸린 제거·매몰해야 하며, 현재까지 이를 방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제가 없는 실정으로, 배 화상병의 사전예방과 확산억제를 위해서는 배 과수원 주변 40m이내의 모과나무 제거·과수 전정도구의 철저한 소독과 동제 화합물인 약제를 과수 개화 전에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 나주시 관계자는 “배 화상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흑성병 예방을 위해 살포했던 석회유황합제를 화상병 약제 살포 일주일 전인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살포해야 한다” 면서, “배 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나주시 배기술지원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원예산업 5개년 종합계획 마련하고 집중 육성

- 농업인, 연합사업단, 지역 농협 대상으로 원예산업발전협의회 조직 -

- 광양시는 빠르게 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원예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집중 육성해 나간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원예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원예농산물(밭작물 포함)의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광양시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 시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3월 8일 농업인, 연합사업단 및 지역 농협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원예산업발전협의회를 조직했다.
- 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되는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통해 그동안 작목별로 분산 추진되던 산지유통계획, 과수발전계획, 주산지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정책을 일원화 해 원예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또 원예농산물의 생산, 유통, 마케팅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역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농가를 지역조합과 농업법인 등의 산지 조직으로 육성해 공동선별·출하, 통합마케팅 등이 가능하도록 산지 유통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 광양시



■ 고흥군, 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농가걱정 끝!

- 주요 과수 4개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80% 지원 -

- 고흥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을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NH농협손해보험에서 상품을 판매해 농협에서 신청을 받는 형식이며, 보험료 중 8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 보험가입은 오는 4월 14일까지 가능하며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단감·곶감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매년 크고 작은 농산물 피해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 농가가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과수·원예산업 집중 육성

- 신선 과채류 육성에 80억원 투입하여 경영안정에 기여 -
- 군의 대표적인 과채류인 딸기·토마토·오이와 참다래·배 등 고품질 농산물 육성을 위해 기반조성 및 생산기자재 보급 등 17개 사업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집중 육성기로 했다.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시설현대화를 통한 과채류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특히, 올해부터 2년간 조성면 일원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12억원을 투입하여 용수원 개발, 경작로 정비 등을 통해 참다래 과실생산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최근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호박·작두콩 등 지역 특화작목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포도나무·레드향 등 아열대 과수 품목 육성에 9개 사업에 21억원을 집중 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이외에도,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등 7개 사업에 47억을 지원하여 생산시설 규모화 및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출 확대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 또한, 지역단위 산지생산·유통 관련기관과 품목별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가를 지역조합·농업법인 등의 산지조직으로 육성해 공동선별, 공동출하, 통합마케팅을 통한 소비자와 함께하는 원예산업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출처 : 보성군



■ 해남군,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로 경쟁력 강화

- 축산환경개선 등 62개 사업에 165억원 투입 -

- 해남군은 올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확충,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에 주력하기로 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등 62개 사업에 총 164억 8,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와 축산 ICT 융복합 시설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에 49억 8,000만원을 비롯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HACCP 컨설팅 등 동물복지형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사업에 8억 9,000만원, 가축인공수정료, 한우개량 등 고품질 한우 생산 사업에 11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 특히,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등 6종의 사업에 52억 9,800만원을 지원해 소 사료비를 절감하고, 가축 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에 15억 7,700만원을 지원한다.
- 또한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공급 등 14종의 사업에 17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고병원성 AI차단 소독약품 공급, 구제역예방 백신공급·접종,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및 거래우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축산차량 GPS 지원과 관리를 통해 가축 이동 경로 상시 감시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군 관계자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 확대로 생산농가의 자립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가축분뇨자원화, 가축 생산비 절감 대책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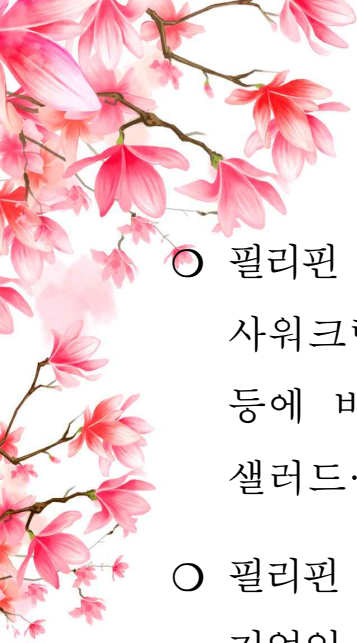
* 출처 : 해남군



8. 해외 농업정보

◆ 필리핀, 유제품 수입 급증

- 필리핀의 유제품 수입량은 2016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한 207만톤이었음.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한 5억 9,881만달러를 기록함. 유제품 중 커피 크림대용품(Coffee Whiteners)의 판매 증가가 4%대로 가장 높았음
- 필리핀은 열대기후 특성상 농축유의 판매량이 많으며, 단맛을 선호하는 필리핀 소비자의 특성상 원유를 이용해 제조한 크림의 판매량도 많은 편임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필리핀의 유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필리핀의 유제품 시장은 식습관 서양화로 인해 우유의 가공식품인 치즈·버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제품 시장 확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필리핀은 7,100여 개의 섬과 아열대 기후로 인해 식품유통이 쉽지 않으며, 냉장저장시설이 열악해 식료품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어려움. 신선우유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대부분의 필리핀 소비자는 농축우유와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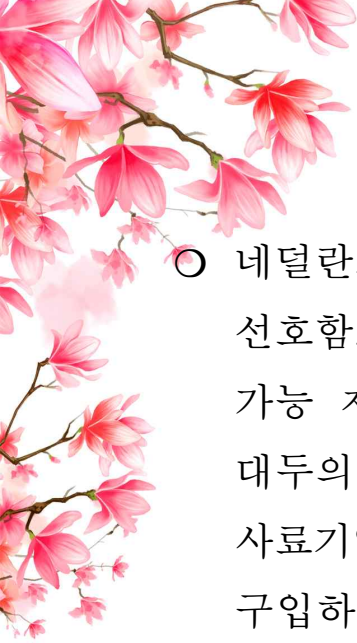
- 필리핀 크림시장에서 다목적 크림의 점유율은 2015년 기준, 75.9%로 사워크림(Sour Cream, 4.6%), 휘핑크림(Whipped Cream, 19.5%) 등에 비해 점유율이 높음. 다목적 크림은 필리핀에서 주로 과일 샐러드·케이크에 주로 사용됨
- 필리핀 우유 및 유제품 시장은 Alaska Milk Corporation와 글로벌 기업인 Nestlé가 과점하고 있는 구조임. Alaska Milk Corporation은 1972년 설립된 필리핀 현지기업으로, 우유 및 유제품 시장 점유율의 약 70%를 차지함. 그러나 2012년, 네덜란드의 낙농조합법인 FrieslandCampina에 의해 98%의 주식이 인수됨
- 한국 기업의 유제품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슈퍼마켓과 식당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아이스크림의 경우 대형 유통기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 디저트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주로 아이스크림, 빙수 등이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음. 또한 교민이 주로 소비하는 농축우유(바나나·과일향 우유)도 필리핀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한국 기업인 『대상』(현지법인명 Daresang Ricor)은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해 유제품의 첨가물을 제조하여 Nestlé에 공급하는 형태로 필리핀 시장에 진출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네덜란드, 대두 재배면적 확대 계획

- 2017년 네덜란드의 대두 재배면적은 약 500ha이며, 소비되는 대두는 대부분 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됨. 2013년 이후 네덜란드 국내 대두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대두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
- 네덜란드 정부는 대두 그린딜 프로젝트(Green Deal Soja in Netherlands)를 통해 국내 대두 재배면적을 1만ha로 확대하고, 대두 수확량을 1ha당 3,500kg으로 늘릴 계획임. 네덜란드 경제부, 환경 인프라부, 흐로닝언(Groningen), 프리슬란트(Friesland), 드렌터(Drenthe) 주, 농업 협동조합 Agrifirm 등이 대두 그린딜 프로젝트에 참여함
- 『Agrifirm』은 1만 7,500명 이상의 농업 종사자로 구성된 농업 협동조합임. Agrifirm의 하위 조직인 Agrifirm Plant는 조합원의 대두를 구매하여 시장에 판매함. 2016년 Agrifirm 조합원의 총 대두 재배면적은 약 17ha이었으며 최상급대두에 책정된 가격은 1톤당 약 530달러였음
- 유럽 내 최대 대두 수입국인 네덜란드의 연간 대두 수입량은 약 830만톤임. 이 가운데 100만톤은 네덜란드에서 소비되며, 나머지는 축산물 및 유제품의 형태로 재수출됨
- 네덜란드는 대두를 가축사료로 가공하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함.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대두는 대부분 가축사료로 사용되며,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은 축산물로 가공되어 재수출됨
- 네덜란드에서 대두는 식품, 화장품, 바이오에너지 원료 등으로 소비되기도 하지만, 전체 대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함



- 네덜란드 사료 제조 기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대두를 선호함. 2013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대두 중 약 0.5%만이 지속가능 재배 인증을 받았음. 지속가능 재배 인증을 받은 전 세계 대두의 30% 이상이 네덜란드로 수입되었음. 2014년, 네덜란드 사료기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대두 약 2억 5,200만kg을 구입하였음. 이는 2013년 1억 4,700만kg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임
- 2015년부터 네덜란드의 모든 낙농가는 지속가능 인증 대두를 원료로 제조한 가축사료만을 사용함
- 네덜란드 중앙정부, 기업,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그린딜 협약을 체결함. 그린딜 협약이 적용되는 산업은 에너지, 기후, 수자원, 생물다양성, 식량 등임. 대두 그린딜 프로젝트(Green Deal Soja in Netherland)는 다양한 그린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임
- 그린딜 협약 내 네덜란드 정부의 역할은 관련법 및 규정을 제정·개정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임
- 네덜란드 경작지 임대료는 브라질이나 미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으로, 네덜란드산 대두가 수입산 대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임. 네덜란드 대두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 와게닝겐 농업대학(Wageningen University)과 네덜란드 농업협동조합 Agrifirm이 제휴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3. 13.(시카고 선물거래소)

□ 남미의 수확량 증가 전망으로 옥수수·대두 선물 가격 하락

○ 밀 선물시장 시황(▼0.8%)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도세 유입 및 풍부한 구곡 공급량으로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옥수수와 대두의 약세 또한 밀 시장에 영향을 주었음. 밀 선물 가격은 전주 대비 2% 하락하였음

○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0.4%)

-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 가격은 작년 8월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세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지난 주 발표된 수급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을 상향 전망하면서 옥수수 가격에 압력을 주었음. 옥수수 선물 가격은 한 주간 3.5% 하락하였음

○ 대두 선물시장 시황(▼0.4%)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브라질 수확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2개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대두박 가격은 두 달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며 상승하였음. 대두유는 말레이시아 팜유의 하락세에 동조하며 하락 마감하였음. 대두 선물 가격은 한 주간 3.1% 하락하였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전남도, 육종농가영농법인 등 대상 31일까지 접수 -

- 전라남도는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 한우고기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한우 고등등록우를 확대 육성해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 절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다.
- 지원 사업비는 축사시설 및 내부 기자재, 퇴비시설, 관리사, 기반 시설 조성 비용 등이다. 지원 비율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형태로 전국 5개소를 지원하며 1개소 당 지원 한도는 12억원이다.
- 사업 신청 대상은 한우 암소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 육종 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 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사업 추진 희망자 및 기관 등은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한우고기 홍콩 수출, 중국 내 소고기 소비 확대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소고기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우수한 송아지 생산을 기반으로 전남 한우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도록 축협, 브랜드 주체, 영농법인 등에서 적극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4월 14일까지 사과·배·단감·곶감 4개 품목 농협서 판매 -

- 전라남도는 오는 4월 14일까지 사과·배·단감·곶감 4개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보장 상품을 농협에서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 가입 대상은 해당 작물을 1천㎡(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등으로 80%를 지원하므로,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 주계약은 태풍(강풍), 우박 등으로 인한 과실 손해를, 특약은 봄·가을 동상해(급속한 냉각 현상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나무 손해를 보장한다.
- 특히 올해는 지난해 폭염 피해 농가의 요구를 반영해 과실 일소(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 피해도 보장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일소 피해 보장 상품은 지난해 적과(알따주기 작업)전 종합위험 상품 가입자와 이번 과수 특정위험 보장상품 가입농가에 한해 6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과수 봄 동상해 피해 보장을 받으려면 오는 3월 24일까지 일찍 가입해야 한다.
- 지난해 전남에서는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에 5천 161 농가가(4천 432ha) 가입해 태풍, 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천 616 농가에서 70억 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출처 : 전라남도



◆ 감동이 있는 『성공농업 이야기』 소개한다

- 전남도,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도 누리집에 연재 -

- 전라남도가 창의적도전적열정적 경영으로 성공을 일군 농업인과 그들의 농업 이야기를 담은 ‘성공농업 이야기’를 오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도 누리집에 연재한다.
- 『성공농업 이야기』는 부농(富農), 대농(大農) 중심의 일률적인 농업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농업의 가능성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 농업을 한층 발전시킨 작은 농부영웅들의 감동적 이야기로 채워질 예정이다.
- 또한 성공 농업인의 농업철학, 농촌생활, 영농활동을 소개해 독자들에게 농업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전해준다.
- 농업의 미래 가능성과 농업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소개해 청년들에게 귀농 및 영농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북돋아줘 도정 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촌』을 이루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성공농업 이야기』 배너를 누르면 언제 어디서나 유익한 이야기들을 전자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전남 농촌의 아름다움과 농사의 즐거움에 대한 신선한 이야기들을 발굴해 소개하겠다”며 “또한 귀농 및 영농 창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촌』을 만들고 살만한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국제농업박람회, 20일부터 입장권 예매

- 현장 구매보다 50% 할인... 가족권은 사전예매만 판매 -

- 오는 10월 비즈니스와 첨단기술 및 민관협력 박람회로 치러질 2017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사전예매가 20일부터 개시되는 등 박람회 개최 준비가 본격화됐다.
- 12일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에 따르면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20개 나라 380개 기관단체와 기업 참여, 각종 전시 콘텐츠의 체험행사에 45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 특히 박람회 성공의 원동력인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입장권을 20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사전 예매 입장권은 현장 구매보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일반인권 5천원, 청소년권 2천 500원 어린이권 1천 500원, 가족권 1만 2천원이다.
- 이 가운데 2015년 가족단위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가족권(4인)은 사전예매용으로만 판매한다.
- 박람회사무국 관계자는 “입장권은 박람회 사무국(061-339-9221)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4월부터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관람객들의 구매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 나주 산포면 소재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 출처 :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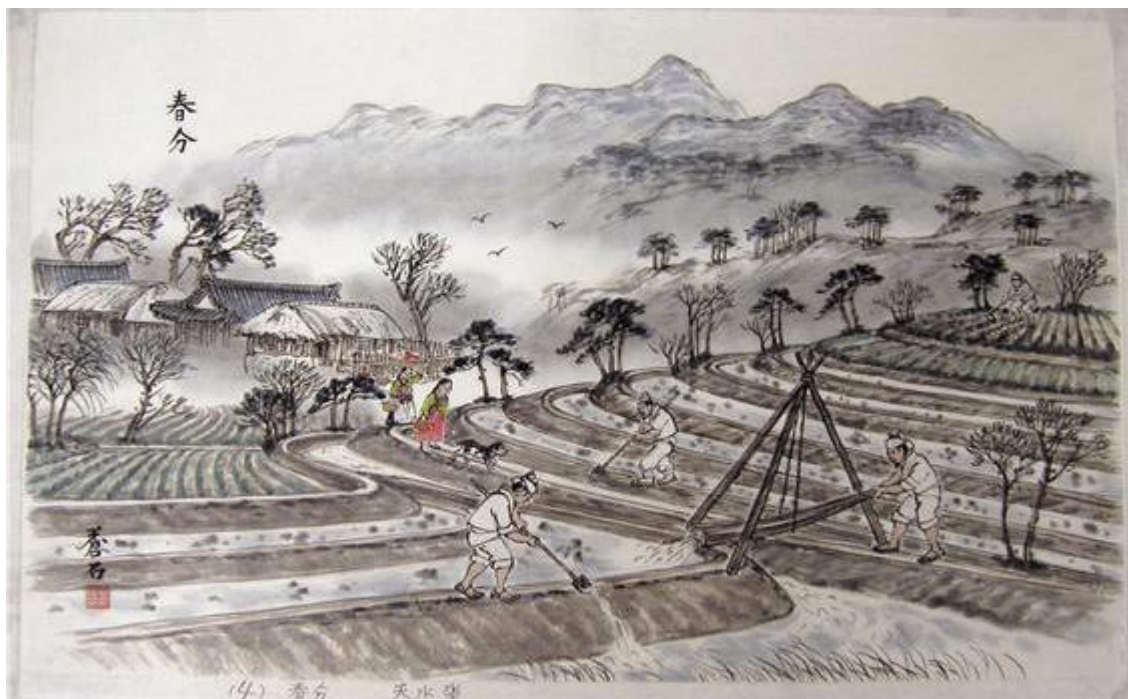
◆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春分), 24절기 가운데 네 번째 절기

- 3월 20일은 춘분(春分)으로 24절기 가운데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은 양력 3월 21일 전후, 음력 2월 무렵에 든다.
- 이날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적도를 통과하는 점, 곧 황도(黃道)와 적도(赤道)가 교차하는 점인 춘분점(春分點)에 이르렀을 때 태양의 중심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어, 양(陽)이 정동(正東)에 음(陰)이 정서(正西)에 있으므로 춘분이라 하고, 이날은 음양이 서로 반인만큼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
- 이 절기를 전후하여 농가에서는 봄보리를 갈고 춘경(春耕)을 하며 담도 고치고 들나물을 캐어 먹는다.
- 춘분은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풍습이 대부분으로, 겨우내 약해진 논·밭두렁에 말뚝을 박는 것이 대표적이고, 이날 날씨를 통해 한해 풍흉(豐凶)과 운수를 점치기도 하였다.
-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다고 하고, 이날은 어두워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해가 뜰 때 정동(正東)쪽에 푸른 구름 기운이 있으면 보리에 적당하여 보리 풍년이 들고, 만약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병이 많다고 하였다.
- 이날 운기(雲氣)를 보아, 청(靑)이면 충해(蟲害), 적(赤)이면 가뭄, 흑(黑)이면 수해, 황(黃)이면 풍년이 된다고 점친다. 또 이날 동풍이 불면 보리값이 내리고 보리 풍년이 들며, 서풍이 불면 보리가 귀(貴)하며, 남풍이 불면 오월 전에는 물이 많고 오월 뒤에는 가물며, 북풍이 불면 쌀이 귀하다고 하였다.



- 음력으로 2월경에 돌아오던 춘분은, 춥지도 덥지도 않지만 겨울의 찬 기운 남아있어 꽃샘추위에 관련된 속담이 전해진다. 『2월 바람에 김칫독 깨진다』, 『이월 바람에 검은 쇠뿔이 오그라진다』, 『정이월 늦바람에 바위 끝 눈물 난다』 등 2월 꽃샘추위의 위력이 느껴지는 속담들이 있다.
- 춘분에는 송편과 같은 떡을 만들어 나이대로 나눠 주었고, 머슴은 물론 어린아이들에게도 나눠줬는데, 이 떡을 나이떡 또는 머슴떡이라고 불렀다.
- 또 집집마다 콩을 볶아 먹기도 했는데 이날 볶은 콩을 먹으면 새와 쥐가 사라져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힘든 보릿고개를 버티던 사람들은 이 콩 볶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주간

전남농업정보

127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